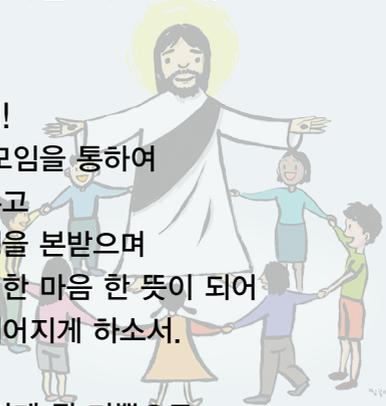


##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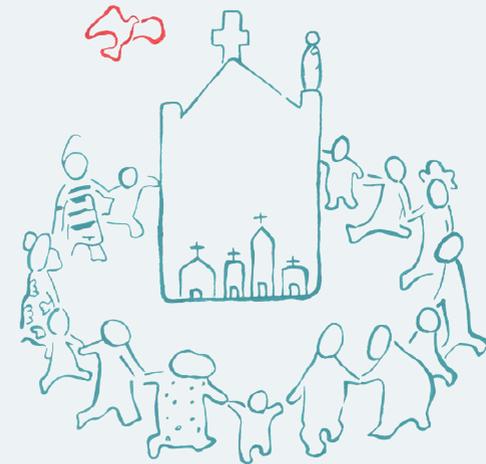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 소공동체 모임 순서

- ▶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 ▶ 소공동체모임 시작 전에, 매월 2째주 혹은 3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 1. 시작성가

-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 )번 (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2. 인사 나누기

-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진행]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 3. 전 모임 기록 낭독

[진행]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진행] • 길잡이에서 ( )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1] 주님초대하기
-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 [5] 말씀 살기
  - 1) 지난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 [6] 마침기도

### 5. 궁금했어요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진행]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진행]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진행]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진행]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진행]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 9. 마침성가

-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진행]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 )번 ( )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 연중 제23주일(9월 8일) 버림과 따름 (루카 14,25-33)



## 성 베드로의 십자가형

- 루카 조르다노, 1660년, 아카데미아 미술관 소장 -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루카 14,27)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복음)을 전하다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닮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는 베드로의 뜻에 따라 그의 십자가는 거꾸로 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에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는 은총을 청합니다.

지영현 시몬 신부(서울대교구) 출처 : 서울주보, 2013. 9. 8.

##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30장 “승리의 십자가”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당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가게하소서.  
- 주님, 당신을 위해 제 자신을 버리고 따르게 하소서.

##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루카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25 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서서 이르셨다. 26 “누구든지 나에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와 자녀,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7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8 너희 가운데 누가 탑을 세우려고 하면, 공사를 마칠 만한 경비가 있는지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지 않느냐? 29 그러지 않으면 기초만 놓은 채 마치지 못하여, 보는 이마다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30 ‘저 사람은 세우는 일은 시작만 해 놓고 마치지는 못하였군.’ 할 것이다. 31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가려면, 이만 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는 그를 만 명으로 맞설 수 있는지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지 않겠느냐? 32 맞설 수 없겠으면, 그 임금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평화 협정을 청할 것이다. 33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누구든지 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뒤를 따라오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루카 14,27)

자신의 십자가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누어 봅시다.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루카 14,33)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를 빼버리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을 갖겠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겠다는 뜻이고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맞는 적당한 십자가를 정해두고 계십니다. 이미 져야 될 십자가는 정해져 있고 누가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고난'이라는 것은 말 안 해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이해 타산적인 사람은 희생의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재미만을 추구하려는 신앙인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재미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 났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인은 십자가의 삶을 기본으로 삼

아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난을 더 이상 연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상징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고난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고난이기에 생각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과 만족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벗어놓고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나의 십자가를 다시 찾아 등에 맵시다. 잃어버린 십자가를 되찾아야 합니다. 천국으로 건너가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십자가 없이 천국 문 앞에 다다랐을 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30장 “승리의 십자가”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연중 제24주일(9월 15일)  
**되찾은 양의 비유, 되찾은 은전의 비유**  
 (루카 15,1-10)



**잃어버린 양의 비유**

- 크리스천 빌헬름 에른스트 디트리히, 1757 -  
출처 [www.artnet.com](http://www.artnet.com)

**시작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55장 “착하신 목자”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길 잃은 양들을 찾으시는 주님! 저희를 구원으로 이끄소서.  
- 주님, 당신의 음성을 잘 알고 따르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루카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1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모여들고 있었다. 2 그러자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군.” 하고 투덜거렸다. 3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4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5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6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7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8 또 어떤 부인이 은전 열 닢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닢을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느냐? 9 그러다가 그것을 찾으



면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1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하느님의 천사들이 기뻐한다.”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 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저 사람은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또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군.”하고 투덜거렸다. (루카 15,2)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투덜거리지 않나요? 하느님께 또는 이웃에게 투덜거렸던 것들을 나누어 봅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루카 15,7)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이 하늘에서 더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알던 형제님 한 분이 서울에 있는 놀이동산에 갔다가 딸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수많은 사람들 속을 헤집고 다니면서 안타깝게 아이를 찾았다고 합니다. 아이 하나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가족 공동체가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사실

을 실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참 후 다행히 아이를 찾았을 때 가족들은 세상이 모두 자기 것인 양 기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형제님이 딸아이를 잃어버리고 안타까워했던 것처럼 하느님도 자녀 중의 하나를 잃어버린 상태로는 당연히 기뻐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뒤쫓아 가십니다. 사람들은 백중에서 아흔아홉이 있으면 하나 보다 아흔아홉을 더 귀하게 여기지만, 하느님은 그 하나가 없음으로 가슴 아파하시며, 잃어버린 하나를 찾아 떠나십니다. 잃은 자식 하나가 너무나 소중한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인 우리 역시 하느님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영혼에 마음과 정성을 쏟을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좀 더 밝고 평화로워 질 것입니다.

###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 말씀 살기

**[진행자]**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으로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진행자]**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마침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 마침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55장 “착하신 목자”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주님께 맡기는 소공동체

—하동본당 화개구역 유영자(베로니카)—

하동본당은 1916년 문산본당 소속으로 하동공소가 설립되면서 그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소설립 50년 만에 본당으로 승격되어 1966년 1월 24일 이억민 신부님께서 초대주임으로 부임하신 후 본당 부속 건물 신축에 착공하여 같은 해 9월 21일, 당시 교구장이셨던故 김수환(스테파노) 추기경님의 집전으로 축성식을 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안명옥 주교님을 모시고 본당설립 50주년 행사를 가졌고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주 알처럼 반짝이는 섬진강변 가로등이 하동성당 화개구역 한 가정을 비추던 2019년 1월 17일 저녁, 주임 신부님께서 방문하시어 미사가 봉헌되고, 화개구역 소공동체는 첫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반원들은 한사람도 빠짐없이 모였고 그 중에는 오랜 냉담에서 돌아온 세 분의 교우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흩어진 공동체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심에 감사하고 함께하여 주심에 기뻐합니다!’

화개구역은 귀촌, 귀향, 고향지킴이들로 반원이 구성되었고, 지역 특성상 화개장터와 남도대교를 중심으로 광양 다압과 화개면 전체로 형성되어 섬진강을 오가며 소공동체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 장소를 두고 주일미사 후 본당에서 할지, 각 가정을 방문하며 할지 아직 의논중이지만, 이번 모임은 칠불사 주변 범왕리 탄소 없는 마을 배영

애 마리아 자매님 댁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 곳에 살면서도 주일미사, 반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면서 반원 차량 봉사에도 열심이신 마리아 자매님께서 처음에는 주저하셨지만 기꺼이 자리를 마련해주시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숲속 계곡에서 시작된 작은 물줄기들이 강에서 만나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저희 또한 소리 없이 흐를 줄 아는 강물의 지혜를 배워가며, 각자의 발걸음이 한 데 모여 하느님이라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 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소공동체 역할배분 1

소공동체는 '작은 교회'이자 '함께 참여하는 교회'로 구성원 모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소공동체에서 반장이나 서기에 게만 많은 역할이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성원 개개인이 소공동체 모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다양하게 역할을 배분하면 좋습니다.

☞ 반장, 서기, 복음나누기 진행 담당, 선교담당, 봉사활동 담당, 회계담당

이때 역할배분이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이번 호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각 담당의 역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의 역할

- ①모임 전 소공동체 구성원의 연락망을 가동해, 모임 장소와 시간, 준비물 등을 공지하고 적극 참여를 유도합니다.
- ②모임 공백기 동안 구역과 반, 넓게는 본당의 특이 사항이나, 알림사항이 있으면 메모해 둡니다.
- ③서기에게 협조를 구해 지난 모임 회의록을 꼼꼼히 읽어둡니다.
- ④지난 모임에 계획한 활동사항에 대한 평가를 미리 정리해 둡니다.
- ⑤소공동체 모임 진행자 및 각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해 역할을 숙지하도록 권고합니다.
- ⑥모임 시,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중재역할을 합니다(예를 들어, 진행자가 복음 나누기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하지 않고 임의대로 진행하거나, 한 개인이 나눔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기타 소공동체 모임 성격에 너무 어긋나는 몸짓 혹은 기도를 요구할 때 등).
- ⑦소공동체 모임과 복음나누기를 위한 전체적인 준비를 점검합니다.

- 수원교구 복음화국에서 발행하는 「소공동체 봉사자 교육 2단계 지도자용 지침서」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공모

사목국에서는 10월 특별 전교의 달을 맞이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사연을 공모합니다. 기쁨과 온유함으로 하느님과 이웃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성덕의 모범이 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 하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공모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명단은 10월 교구보를 통해 안내하고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릴 예정이며, 선정된 사연은 2020년도 사순시기 묵상집에 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공모내용 : 진실한 믿음으로 하느님을 섬기고 사랑으로 이웃에게 봉사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 분 량 : A4 1장 이내 (글씨크기 12포인트 기준)
- 접수마감 : 9/27(금)
- 접수방법 : ① 이메일 - samok2@cathms.or.kr  
(메일제목 :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공모)  
② 우편 - (51727)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27  
천주교마산교구청 사목국  
(봉투 겉면 표기 :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공모)
- 문 의 : 사목국 249-7021~3